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Contents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ECTION 1.

OVERVIEW

발간사	07
심사총평	09
주제선정	10
공모개요	11

SECTION 2.

WINNERS

대 상	ALLEY : A Living Life for Youth	최원준/김혜진	16
금 상	Flow:er	황재필/안슬비	20
은 상	ST.논현 (Street & Story)	이혜지/강민영	24
동 상	CTB - Crossing The Boundaries	김명훈/김원경	28
동 상	머무름, 교차를 통한 공유	최희주/설재형	32
장려상	Meet Between The Identities	김재모/임채현	36
장려상	Area-Blur-Connect	서예은/신창배	38
장려상	LINK BEYOND “통로공간의 재조명을 통한 열린주거단지”	김경태/우홍식	40
장려상	휴유 - 쉼을 공유하다	이승수/정영진	42

장려상	나는 “실 틈”에 산다	김유림/김하랑	44
장려상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허진주/김도현	46
장려상	CLOSED NEIGHBOR : 가까운 이웃	한소현/남다빈	48
장려상	WHAT'S YOUR #PERSONAL HOUSE?	김채연/최윤서	50
장려상	Fickle To Sustainable	유윤아/윤지영	52
장려상	ZOOM IN, ZOOM OUT	양형모/박진주	54
장려상	Walking Hobby Day	정현일/김규희	56
장려상	FM (Frame on Multi Housing)	이정민/박준형	58
장려상	다정	조현우/임민재	60
장려상	그, 사이 : 사이 공간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시나리오	한상현/김태호	62
장려상	점포주택 “Jump Four” (창업지원특화 청년 임대주택)	민 솔/이소연	64

SECTION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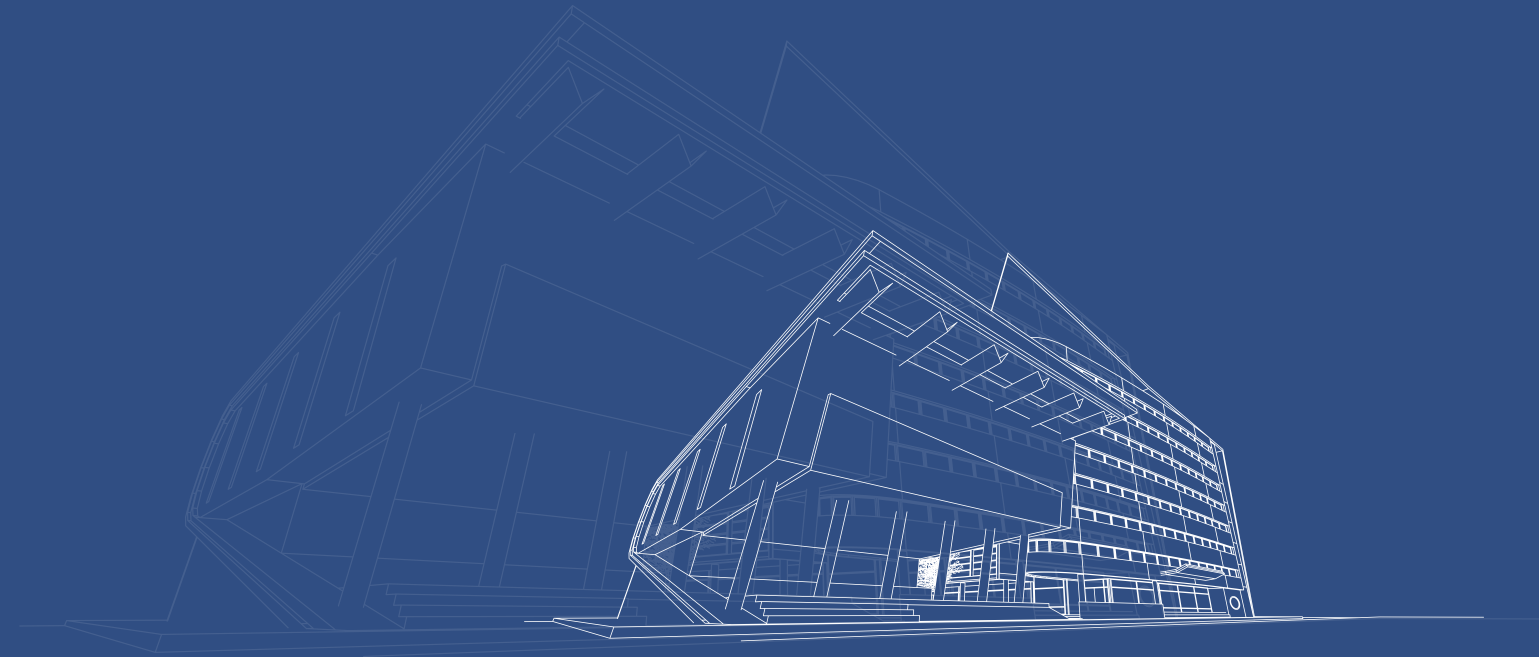
GALLERY

갤러리	68
-----	----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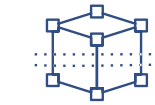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ECTION 1.

OVERVIEW

- 발간사
- 심사총평
- 주제선정
- 공모개요



작품집을 발간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그동안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새로운 주거유형을 발굴해 왔고, 대한민국 건축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뛰어난 역량을 맘껏 발휘할 창기와 도전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D 영상작품과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2차 심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심의 발달은 오히려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점점 부족하게 만들었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개인은 더욱더 지역과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청년들이 주변도시와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주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국 65개 대학의 233팀이 참가한 이번 작품들 중에는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간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조화롭게 계획하여 청년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LH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이끌어 주신 총괄 코디네이터 엄상훈 교수님과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신은기 교수님, 김정훈 교수님, 이소정 대표님, 그리고 공모전을 진행하느라 고생한 주택기술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12

건설안전기술본부장 **장철국**



심사총평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공동주거에 대한 고민을 넘어 도시의 일상을 새롭게 제안하고 실험하는 장이였습니다. 도시의 흐름을 만들고 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유형에 대한 고민이었으며, 다채로워지는 삶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청년복합주거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우수한 학생제안이 제출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해석이 충실하고 독창적인 학생들의 창의적 제안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도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이 드러났으며,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정 밀도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제안도 있었으며, 수평적 관계를 넘어 수직적으로 다양한 공간의 관계를 만드는 신선한 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비해 대상지의 경사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시도가 많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지만, 복합적인 도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심사위원과 관계자 모두에게 즐거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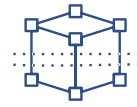
한정된 수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격의없는 토론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 발표의 수준과 발표자료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학생들과의 대화와 논의 또한 본 주택건축대전의 가장 의미있는 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신은기 인천대 교수님, 김정현 홍익대 교수님, 이소정 OBBA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26년 넘게 주택건축대전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지속해주신 LH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상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2. 12
코디네이터 **염상훈** (연세대학교)



주제선정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존중하는 청년을 위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는 다채로운 삶과 변화하는 공동체를 위한 도시융합형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주변 도시와 상생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복합주거의 제안을 기대한다.

■ MULTI-LIFE :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다채로운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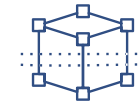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에 속해있고 온-오프를 넘나드는 생활이 일상인 청년층은 다양한 그릇을 필요로 한다.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변화를 겪는 시기인 청년층의 주거환경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고민되어야할 것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다양성과 입체적 균형은 개인 단위 공동체에서부터 마을 혹은 더 나아가 도시 단위의 공동체가 활발히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일 것이다.

■ MULTI-PURPOSE : 도시융합형 주거환경

도시 안에 충분한 공공 공간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의 닫힌 주거단지는 주변 도시와의 불균형과 단절을 강화하게 된다. 도시의 흐름을 만들고 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안의 공용시설, 공공시설, 상업 및 비상업 편의시설 등이 어떻게 주변도시와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선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켠과 도시적 환경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도시 조직과 긴밀히 융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MULTI-MEANING : 친환경, 친사회적 주거환경

공동주택이라는 주거공간이, 거주 그 이상의 의미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공간적이며 기술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공모개요

▼ 목적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場 마련을 위해 2022년 제26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시행함

▼ 참가자격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전공 불문
(1팀 2인 이내)

▼ 작품접수

1차 : 2022. 08. 03
판넬(축소판) 및 작품설명서 제출

2차 : 2022. 09. 07
판넬, 모형 및 영상 콘텐츠 제출

▼ 코디네이터

염 상 훈 교수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대상지

1. 위 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현, LH서울지역본부 부지)
- 2.면 적 : 6,588㎡
- 3.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작품심사

1차 : 2022. 08. 12
2차 : 2022. 09. 16

▼ 심사위원

김 정 현 교수 / 홍익대학교
신 은 기 교수 / 인천대학교
이 소 정 대표 / OBBA 건축사사무소

▼ 참가신청

참가신청 및 질의응답 기간
2022. 06. 13 ~ 07. 01

▼ 발표 및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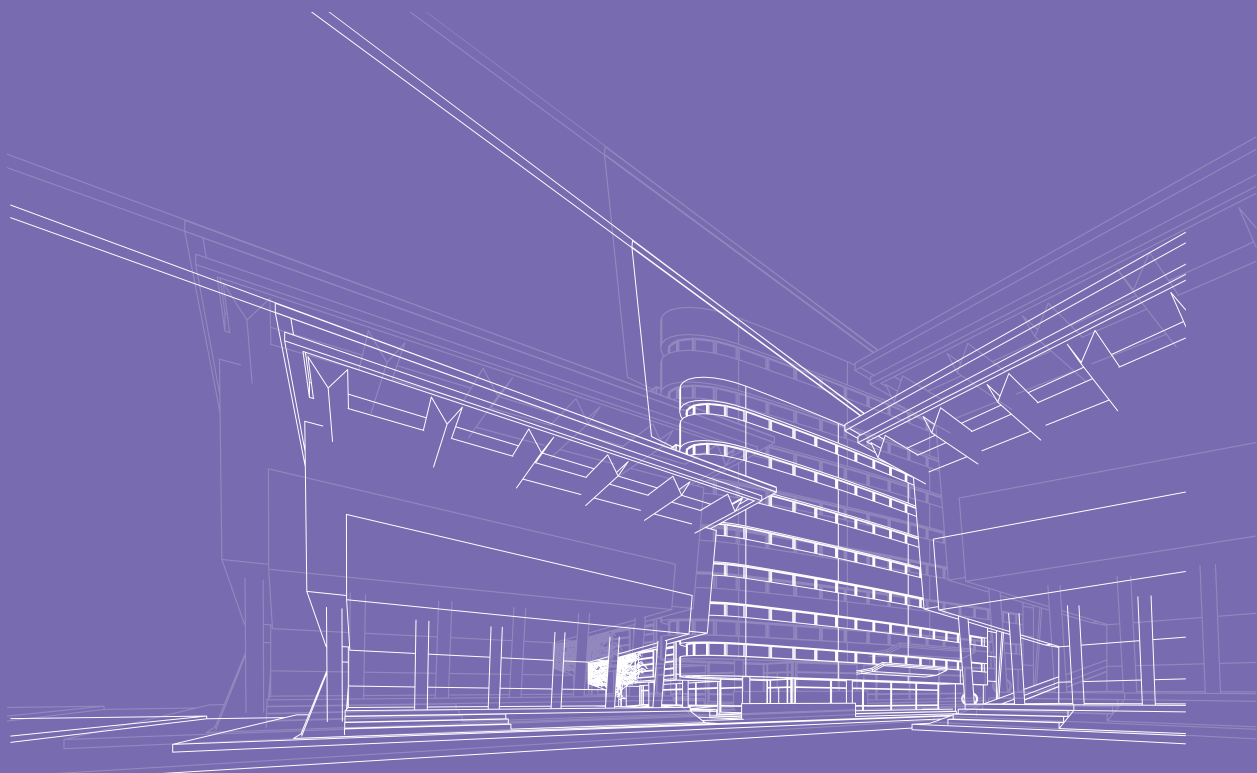
당선작 발표
2022. 09. 21

시상식
2022. 12. 06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SECTION 2.

WINNERS

- 수상자
- 수상作品集

수상자

대상



● ALLEY : A Living LiFe for Youth
부경대학교 | 최원준, 김혜진

금상



● Flow:er
홍익대학교 | 황재필, 안슬비

은상



● ST.논현 (Street & Story)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혜지, 강민영

동상



● CTB - Crossing The Boundaries
경북대학교 | 김명훈, 김원경



● 머무름, 교차를 통한 공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희주, 설재형

장려상



● Meet Between The Identities
서울시립대학교 | 김재모, 임채현



● Area-Blur-Connect
경희대학교 | 서예은, 신창배



● LINK BEYOND 통로공간의 재조명을
통한 열린주거단지
경북대학교 | 김경태, 우홍식



● 휴유 - 쉼을 공유하다
서울시립대학교 | 이승수
고려대학교 | 정영진

장려상



● 나는 “설 틈”에 산다
한국교통대학교 | 김유림, 김하랑



●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선문대학교 | 허진주, 김도현



● CLOSED NEIGHBOR : 가까운 이웃
동의대학교 | 한소현, 남다빈



● WHAT'S YOUR #PERSONAL HOUSE?
전남대학교 | 김채연, 최윤서



● Fickle To Sustainable
홍익대학교 | 유윤아, 윤지영



● ZOOM IN, ZOOM OUT
명지대학교 | 양형모, 박진주



● Walking Hobby Day
성균관대학교 | 정현일, 김규희



● FM (Frame on Multi Housing)
홍익대학교 | 이정민, 박준형



● 다정
단국대학교 | 조현우, 임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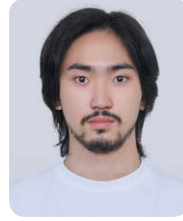
● 그, 사이 : 사이 공간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시나리오
아주대학교 | 한상현
건양대학교 | 김태호



● 점포주택 “Jump Four”
(창업지원특화 청년 임대주택)
중앙대학교 | 민 솔
강원대학교 | 이소연

대상

ALLEY : A Living Life for Youth



최 원 준
부경대학교



김 혜 진
부경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ALLEY는 골목길을 활용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제안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이 뚜렷해지고 다양해지는 장점과, 공동체가 약화되는 단점을 가진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의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는 공동의 색이 짙었던 이전의 주거에 주목했다. 주택들과 그 사이를 잇던 골목길, 길을 따라 간접적으로 보이는 서로의 공간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었고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를 공동주택으로 가져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를 만드는 주거를 제안하고자 한다. 골목길은 편복도로, 간접적으로 보이는 서로의 공간은 버퍼 스페이스로 구현해 서로를 마주치게 한다. 그리고 이 개인과 공동의 균형이 ALLEY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지역개방형 청년 복합주거 ALLEY를 표현하고자 한다.



- 골목길을 활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



특징 강남은 현재 2540여의 상업주거지역 개발을 앞두고, 특히 한강, 여주대교, 주저가 및 잠실역 모던 12만 2천세대와 469천여㎡의 대단지 아파트 54개(면적 54%)가 일제 분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http://www.kbae.co.kr/portal/0997572501/view.do?viewId=>

잠재성 자철철 78년 건설업체가 접어들고, 미술·건축·조각·요소·미술·사진·영성 등 스페이스에 있어 백본이 되고자, 자연과 관련된 요소들을 모국적·복합적·유기, 학교와 공공 기관이 거머쥔 영향이 여타에 비해 주가가 밀집되어 있다. 논현동 내내도 상업주거지역과 주거가 뒤섞인 것은 위주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잠재성이다.

고려사항 주변 환경을 반영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의 많은 주유량과 생활 편의와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비추어 판단된다.

공동주택에서 공동의 여가를 위해 갖춰져야 하는 요소, 무늬는 공동의 색이 칠해진 아연의 주에
 놓였다. 주택들과 그 사이를 잇던 굴곡막, 갈대밭 간헐적으로 보이는 시로의 공간으로 우리는
 인식적으로 연결되었고, 사람들이 마주치야만했을 뻔한 시로의 행로를 공동주택으로 가져
 오는 개성있는 표현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치개방형 친환경주택을 세
 우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개성있는 공동의 공명이 ALLEY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줄 것이다.

지연 골목
수거물은 저층부에는 자연과 연계할 수 있는 빗
매지터 주변과 연결할 수 있는 골목길에 형성된
물줄기는 사이 공간인 초하의 골목을 연결함

생할 골목
수직적으로는 편평도와의 형성을 위해 고개를 돌
린 간지(BUFFER SPACE)로 주거복합이 밀집하여
복합된 공간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계획했다.

지연 골목
동과 동 사이의 녹색벽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Figure 2: Comparison of four housing types. The figure shows four floor plans with dimensions and area calculations. 1. 대형석 시애틀트오피스 1인 주택 (Large Seattle Office 1-person house): Dimensions 3200 x 1900, area 6080 sqm. 2. 신촌 북부 2인 주택 (Shincheon North 2-person house): Dimensions 5000 x 1900, area 9500 sqm. 3. 을산 (Eulsan): Dimensions 7000 x 1900, area 13300 sqm. 4. 혼자만 2인 주택 (Solo 2-person house): Dimensions 3100 x 1700 x 3100, area 5270 sqm. Each plan includes a 'BUFFER SPACE' area.

Architectural section drawing of a multi-story building complex. The drawing shows various floor levels, including a ground floor (GL) and several upper floors (2F, 3F, 4F, 5F). The building features a mix of solid walls and open spaces, with some areas labeled 'KITCHEN' and 'LIVING'. A scale bar at the bottom indicates dimensions in meters (0, 1, 2.5, 5, 10 m).

금상

Flow:er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Flow:er는 생애 주기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그 사람들이 함께 피워내는 커뮤니티이다. 청년이라는 시기는 단순히 한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생애 주기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생애 주기를 아울러 담을 수 있는 'Multi-House'를 제안한다.

모든 생애 주기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극단적인 소비 중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도시농업을 제안하며, 이러한공동의 활동이 온전히 작동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생애 주기의 시기와 개인의내·외향적성향,인원구성의 형태에 따라 10가지의 주거 유닛을 제안한다. 유닛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농업과 그를 기반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나아가 도시공동체로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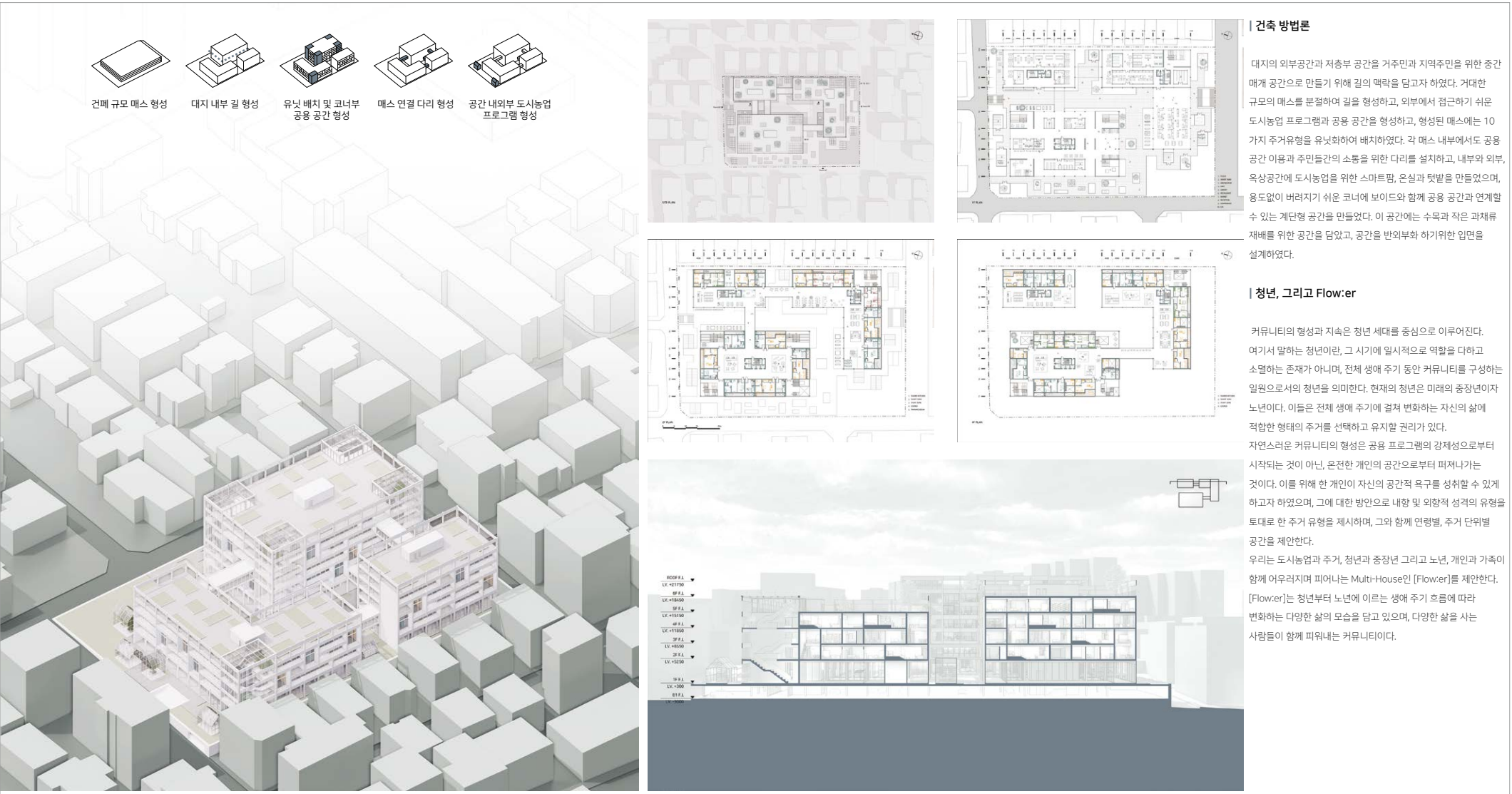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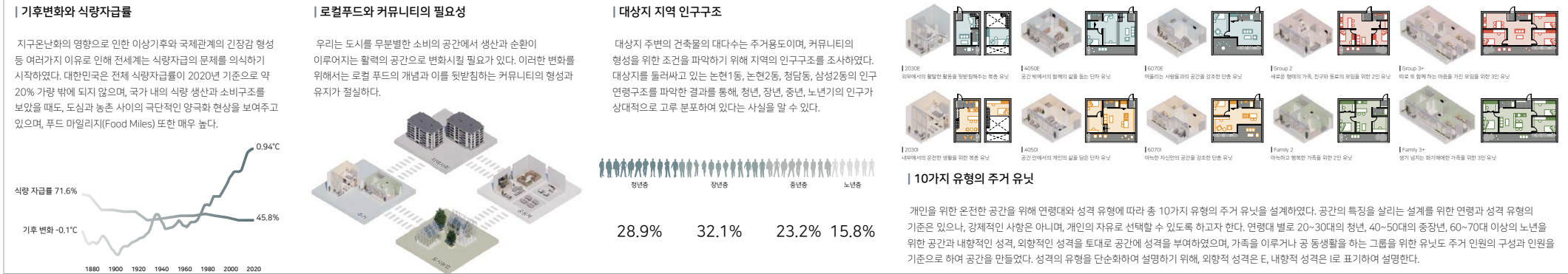


황재필
홍익대학교



안슬비
홍익대학교





ST.논현 (Street & Story)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STreet에서 Story를 만들어간다.

포스트 코로나 - 팬데믹 이후 취약 계층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대면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어려워지고,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때로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하며, 경제력 및 연령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옛 골목길의 자연스럽게 따뜻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적 토속 - ST.논현은 가로에 대응하며, 이웃과 열린 공간 공유를 위한 골목길을 단지 내에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랑채와 뜰을 계획하였다. 뉴노멀 시대에서, 주거는 기존의 기능에 거주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옛 골목길과 길에 놓여있던 평상을 현대화하여, 복도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커뮤니티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거 문화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혜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민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논현 _ Street & Story

An architectural rendering of a modern multi-story building named 'ST.논현' (ST. Nonhyeon). The building features a ground floor with a series of arched windows and a central entrance area. Above this, the building is composed of several floors with a mix of solid walls and open, grid-like sections that reveal interior spaces. Numerous balconies with metal railing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many of which are adorned with potted plants and small trees. The building is set in an urban environment with trees and a paved plaza in the foreground. Several small human figures are placed throughout the scene to provide a sense of scale: some are walking on the plaza, one is riding a bicycle, and others are standing on the balconies. The sky is a soft, hazy orange-brown color, and a few birds are visible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overall style is clean and contemporary, emphasizing the building's unique facade and its integration with greenery.

CTB - Crossing The Boundaries



김명훈
경북대학교



김원경
경북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CTB는 도시와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와 입주민과 기존의 원주민, 입주민과 입주민들 간의 경계를 해체한다. 그리하여 경계 사이에 존재하던 공간 속에서 경계로 인한 단절된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해체되며 생겨나는 새로운 영역들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인 ‘청년’들의 불완전한 가치관을 자신들만의 온전한 가치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경계를 해체하면서 열린 주거 단지를 형성하여 주변 도시와의 균형과 소통을 만들어내도록 이끌어 입주자만을 위한 주거공간뿐만이 아닌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하나의 소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존중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체되는 경계 속 형성된 다양한 공간들에서 청년들의 거주성 확보는 물론 그 이상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CTB, CROSSING THE BOUNDARY

건축 개요

위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전, LHJ2017영부 003)
 용도지역 : 용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4,500㎡
 건축면적 : 2,832.2㎡
 연면적 : 12,314.5㎡
 근린도 : 100.7%

용적률 : 196.3%

층수 : 지하 2층 ~ 15층 15층
 바닥면적 : 3차 4,228㎡
 2차 2,845.5㎡
 1차 6,885.0㎡

주차 : 150대 (지하 150대, 1층 150대, 2층 150대, 3층 150대)

30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기존의 좁은 청년주택의 형태를 탈피하고 다채로운 청년들의 삶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하고 다양한 단위세대를 조합하여 3층 규모의 큐브 형태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형태의 좁은 복도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2층에서 3개의 층이 공유하는 넓은 공간으로서 거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

성격이 다른 세대들로 이루어진 큐브들은 막대 형태로 길게 이어져, 격자형 가로망의 형태인 강남과의 자연스러운 도시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또한 막대 형태의 큐브들이 교차된 공간은 또 다른 공유 공간을 만들어내고, 격자를 통해 형성된 공간은 다양한 분위기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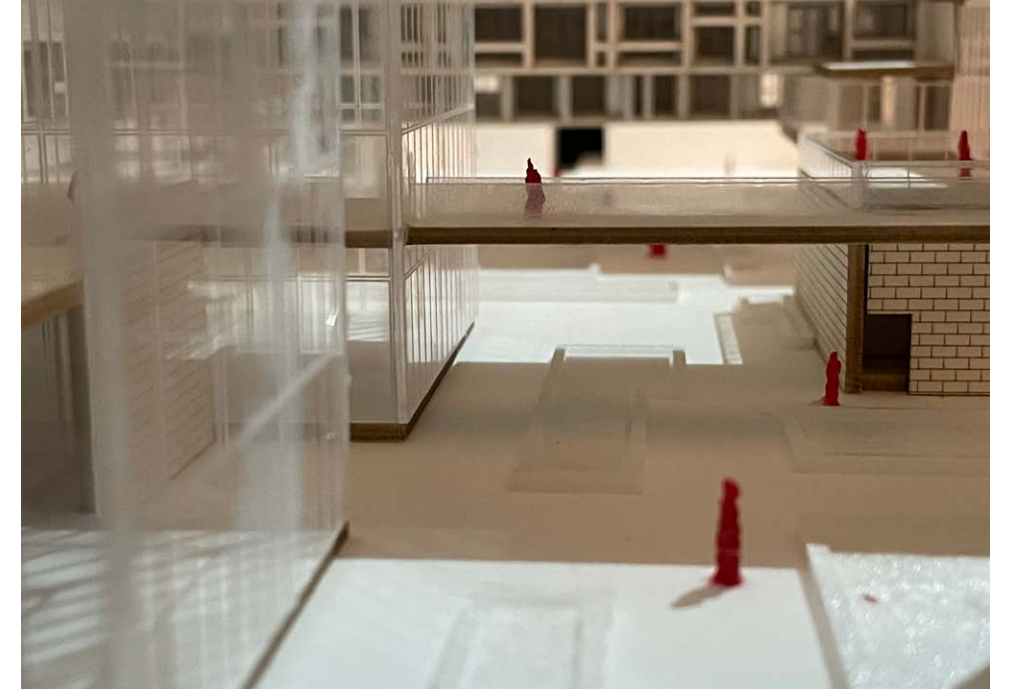
최근 청년들의 취미활동 1위로 재테크가 부상하는 한편 청년 부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에 경제 교육시설을 배치하여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복합주거를 제안한다.



최희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설재형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머무름, 교차를 통한 공유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지면적 : 6,588㎡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 3326.97㎡

연면적 : 16546.84㎡ - 지하 1층 4476.24㎡

상가시설 (부대시설) 2795.7㎡, 주거시설 9274.9㎡

건폐율 : 50.5%

용적률 : 183.22%

층도 : 공동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

최고높이 : 24.3m

세대수 : 66세대 (63㎡ 30세대, 54㎡ 36세대)

■SITE

■SITE ANALYSIS

-강남언구비율

논현동은 30세대 초반과 20세대 후반 등의 대부분 젊은 층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층은 취업을 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룬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이트 특성

강남은 격자형 가로망 형태의 구성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사이트의 동쪽을 제외한 각 축에는 강남구청역, 선릉공원역과 이어진 도로가 접해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ISSUE

2020년대의 도시 형태 변화 예측

구분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주거	43%	35%	28%
상업	15%	22%	30%
문화	10%	18%	25%
공공	12%	15%	17%

이제보다 지금에 투자하는 청년들
청년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준으로 정당한 가치관이 아닌 지금을 위한 투자를 합니다. 이는 주거환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주거는 더 이상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취미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PROGRAM

1층의 자유공간 배치
1층에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카페 등을 배치합니다. 또한 접해있는 모든 도로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하여 편리한 형태로 배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전면에 프로그램 배치
도로와 가장 많이 접해있는 사측의 전면에 거주자와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가 및 경제교육시설을 배치하여 주거공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CONCEPT

격자의 교차로인 공간의 다양성
머무름을 통한 지역 연계

■SHARE CONCEPT

격자형
격자형 가로망으로 구성된 강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도시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교차로 통해 형성된 다양한 공간의 공간은 지역주민과 거주인이 위화감 없이 머무르게 합니다.

-머무름
청년층은 청년시기에 머무는 곳입니다. 머무름을 통해서 청년에게는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준비를, 지역주민에게는 바쁜 사회에서의 휴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를 위한 공적영역의 공유
주거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중정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거주민들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거주자를 위한 사회적영역의 공유
세대들의 교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공유 공간은 거주민들을 위한 공적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복도의 공유
한 세대의 복도 복도 공유
기존 공동주택의 형태는 각 층마다 좁은 복도 3개의 층이 하나의 넓은 복도를 사용하여 더욱 많은 공유하여, 만남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공유를 만들어냅니다.

3층에 복도 복도 공유
주거의 격자는 배치를 통해 프로그램과 주거의 배치를 통하여 중정공원을 형성하여 개방하는 형태를 형성합니다.

-거주가 프로그램들
주거의 격자는 배치를 통해 프로그램과 주거의 배치를 통하여 중정공원을 형성하여 개방하는 형태를 형성합니다.

-프로그램에 공헌을
프로그램과 주거의 배치를 통하여 중정공원을 형성하여 개방하는 형태를 형성합니다.

-1층의 자유공간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분할하여 도로에 접한 공간을 용이하게 구성합니다.

■PERSEPECTIVE

■SECTION 600:1

■SITEPLAN 2000:1

■PLAN 1200:1

■UNIT TYPE 400:1

3-Unit Type

2-Unit Type

1F

2F

3F

4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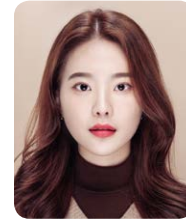
■SECTION PERSEPECTIVE

34

2022 ·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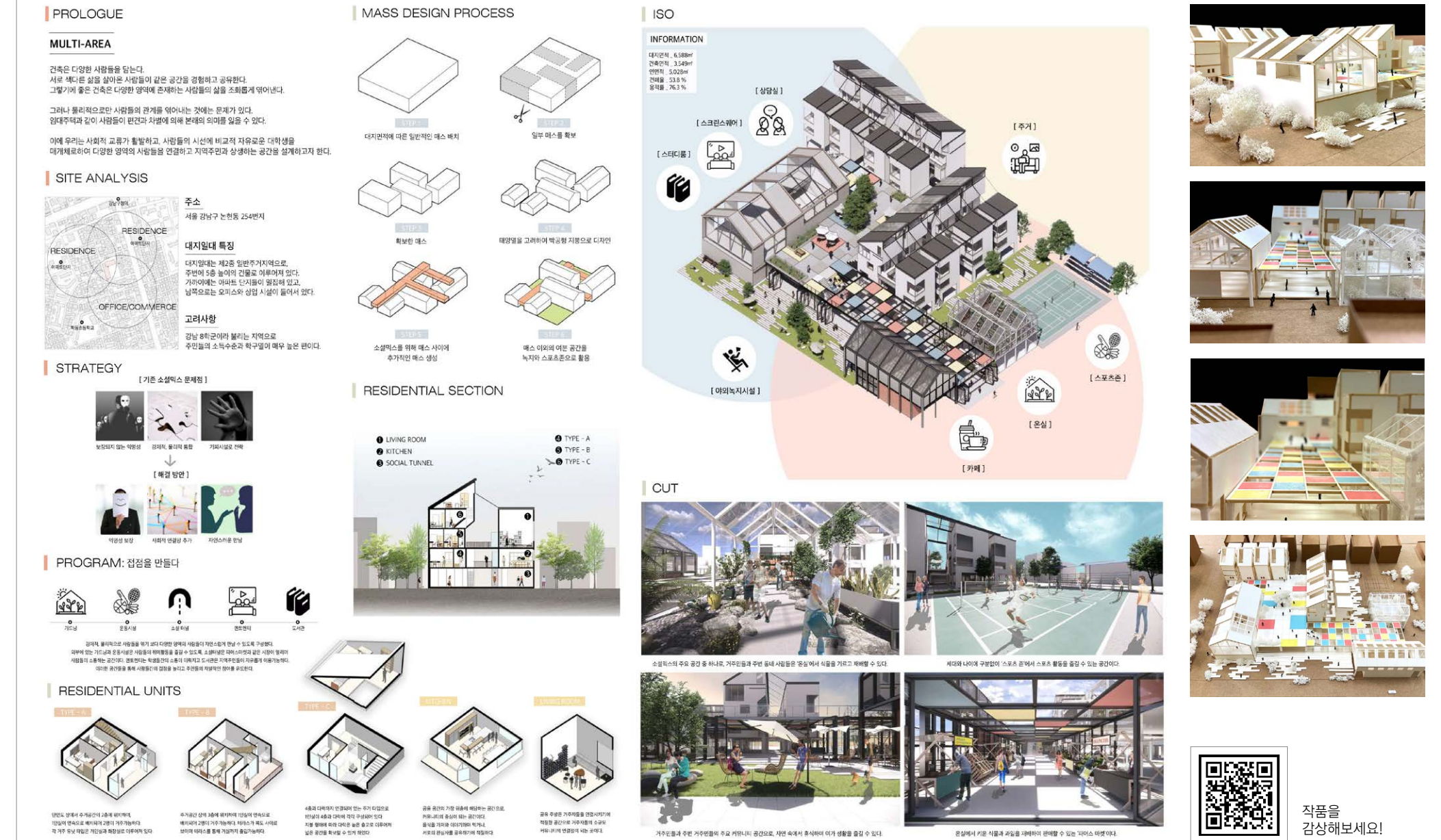


높은 밀도와 변화가 공존하는 도심 회복판. 작은 공원과 주민센터, 차로 가득하던 강남구청 주차장의 명절 장터는 흙내음 가득한 신선한 재료들이 여유를 부리고, 보건소는 코로나에 맞서며 주민을 보호한다. 그러나 공원과 주민센터는 일상 속 이용이 쉽지않고, 명절 장터와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베풀기만 한다. 변화하는 공동체 속 MZ세대는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 가치소비를 통한 사회 환원을 원한다. 이에 스마트 팜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일상의 여유를 찾고 성취, 공유, 환원을 추구하는 선순환을 주도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만남의 기회에 우리는 ‘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짧은 만남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MBTI검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만남의 기회에 상대를 알아가는 작은 단서로 나와 다른 이들의 일상과 활동, 행동 양상 등 질문과 답을 이어간다. 이에 우리는 각자의 에너지 방향과 생활양식에 맞춘 주거를 제안한다.



INTRODUCTION

공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적으로 영역을 줄이거나 넓힌다. 좋은 건축이란 각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삶의 영역(MULTI-AREA)을 존중하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MULTI-AREA가 조화롭게 연결되며 서로 소통 및 교류하는 공간을 설계하고자 했다. 기존 소셜믹스는 사생활 및 선택권이 없는 물리적 통합으로 기피시설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 익명성 보장, 사회적 연결망 추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했다. 해결 방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학생이다. 대상지에는 주거공간과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곳에 거주하며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월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대학생이 주민들과의 교류를 촉진한다.



LINK BEYOND “통로공간의 재조명을 통한 열린주거단지”

경북대학교 김 경 태, 우 흥 식



[건축개요]
 대지면적 : 6,588㎡
 층수 : 7층
 건축면적 : 2510㎡
 건폐율(%) : 42.15%
 연면적 : 13028㎡
 용적률(%) : 197.77%
 주택호수 : 104세대

SYNOPSIS * 청년이 되면서 청년주택 *

The Young Community
 A young community for young people, designed to meet their needs for affordable housing, social interaction, and a sense of community. The project is located in a prime urban area, offering easy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CONCEPT * Multi Life >> LINK BEYOND *

The concept is based on the idea of 'Multi Life', where residents can enjoy a variety of lifestyles and activities within the same community. The design focuses on creating a vibrant, walkable neighborhood with a mix of housing types and public spaces.

CONCEPT STRATEGY * 통로 공간의 재조명 "LINKED LIVING"

The strategy is centered around the 'LINKED LIVING' concept,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link' or 'corridor' space between buildings. By reimagining these spaces as shared, multi-functional areas, the project aims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and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ARGET 다양한 삶의 형태가 이루어진 주거형태 "The Change Makers"

Unit Type	0h	6h	12h	18h	24h
OFFICE WORKERS	REST	WORK	WORK	REST	REST
STUDENTS	REST	WORK	WORK	REST	REST
CHANGE MAKERS - DESIGNER					

UNIT IDEA * 통로 공간의 재조명 "LINKED LIVING"

The unit idea is based on the 'LINKED LIVING' concept,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link' or 'corridor' space between buildings. The design focuses on creating a vibrant, walkable neighborhood with a mix of housing types and public spaces.

INTRODUCTION

LINK BEYOND는 대지 주위로 연결된 가로들을 내부로 끌어들이며 사람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소통하며 삶을 공유한다. 그 중 ‘통로공간’에 집중한다. 통로공간에 위계를 설정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생각을 표현하며 비로소 같이 사는 의미를 찾게 된다. SEMI의 개념을 넣어 거주자의 흐름을 점층적으로 나누며 다양한 행위가 ‘통로공간의 폭’에서 일어나게 된다. 지상층은 PUBLIC한 공간이며, 도시적 맥락을 확장시킨다. 지상층의 생활가로는 단지 거주민과 지역주민 화합의 공간이자, 지역공동체가 스며드는 공간이 된다. 거주자의 각 유닛은 PRIVATE한 공간으로 복도공간의 폭을 확장하고 VOID를 부여하여 수직/수평적으로 거주자간의 커뮤니티를 확장시킨다. LINK BEYOND는 서로 다른 삶이 하나되고 나아가 도시와 연결되는 가능성을 담은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ISOMETRIC

SECTION DEATIL

DETAIL

지상 5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점지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지하 3층 평면도

지하 4층 평면도

지하 5층 평면도

지하 6층 평면도

지하 7층 평면도

지하 8층 평면도

지하 9층 평면도

지하 10층 평면도

지하 11층 평면도

지하 12층 평면도

지하 13층 평면도

지하 14층 평면도

지하 15층 평면도

지하 16층 평면도

지하 17층 평면도

지하 18층 평면도

지하 19층 평면도

지하 20층 평면도

지하 21층 평면도

지하 22층 평면도

지하 23층 평면도

지하 24층 평면도

지하 25층 평면도

지하 26층 평면도

지하 27층 평면도

지하 28층 평면도

지하 29층 평면도

지하 30층 평면도

지하 31층 평면도

지하 32층 평면도

지하 33층 평면도

지하 34층 평면도

지하 35층 평면도

지하 36층 평면도

지하 37층 평면도

지하 38층 평면도

지하 39층 평면도

지하 40층 평면도

지하 41층 평면도

지하 42층 평면도

지하 43층 평면도

지하 44층 평면도

지하 45층 평면도

지하 46층 평면도

지하 47층 평면도

지하 48층 평면도

지하 49층 평면도

지하 50층 평면도

지하 51층 평면도

지하 52층 평면도

지하 53층 평면도

지하 54층 평면도

지하 55층 평면도

지하 56층 평면도

지하 57층 평면도

지하 58층 평면도

지하 59층 평면도

지하 60층 평면도

지하 61층 평면도

지하 62층 평면도

지하 63층 평면도

지하 64층 평면도

지하 65층 평면도

지하 66층 평면도

지하 67층 평면도

지하 68층 평면도

지하 69층 평면도

지하 70층 평면도

지하 71층 평면도

지하 72층 평면도

지하 73층 평면도

지하 74층 평면도

지하 75층 평면도

지하 76층 평면도

지하 77층 평면도

지하 78층 평면도

지하 79층 평면도

지하 80층 평면도

지하 81층 평면도

지하 82층 평면도

지하 83층 평면도

지하 84층 평면도

지하 85층 평면도

지하 86층 평면도

지하 87층 평면도

지하 88층 평면도

지하 89층 평면도

지하 90층 평면도

지하 91층 평면도

지하 92층 평면도

지하 93층 평면도

지하 94층 평면도

지하 95층 평면도

지하 96층 평면도

지하 97층 평면도

지하 98층 평면도

지하 9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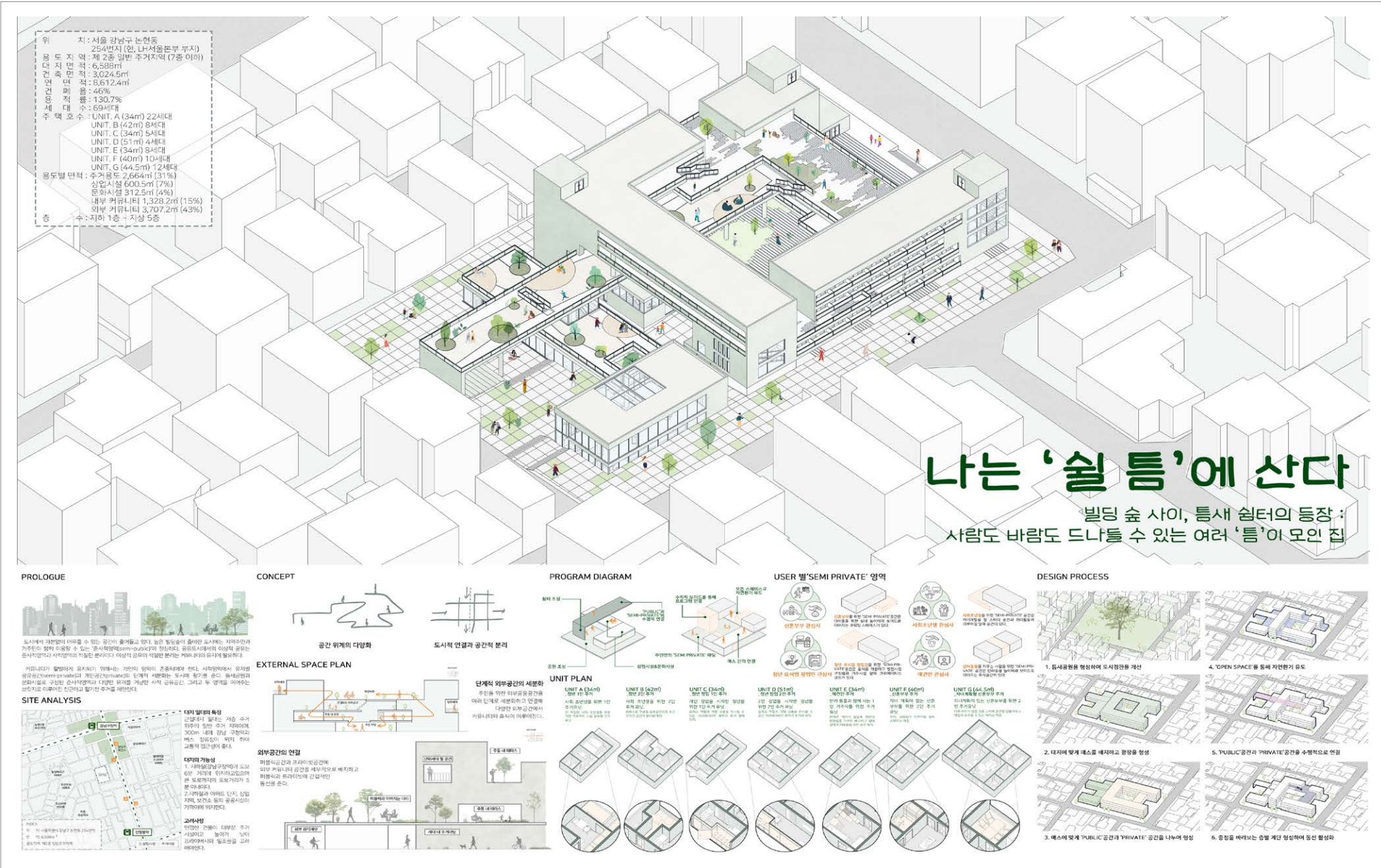
지하 100층 평면도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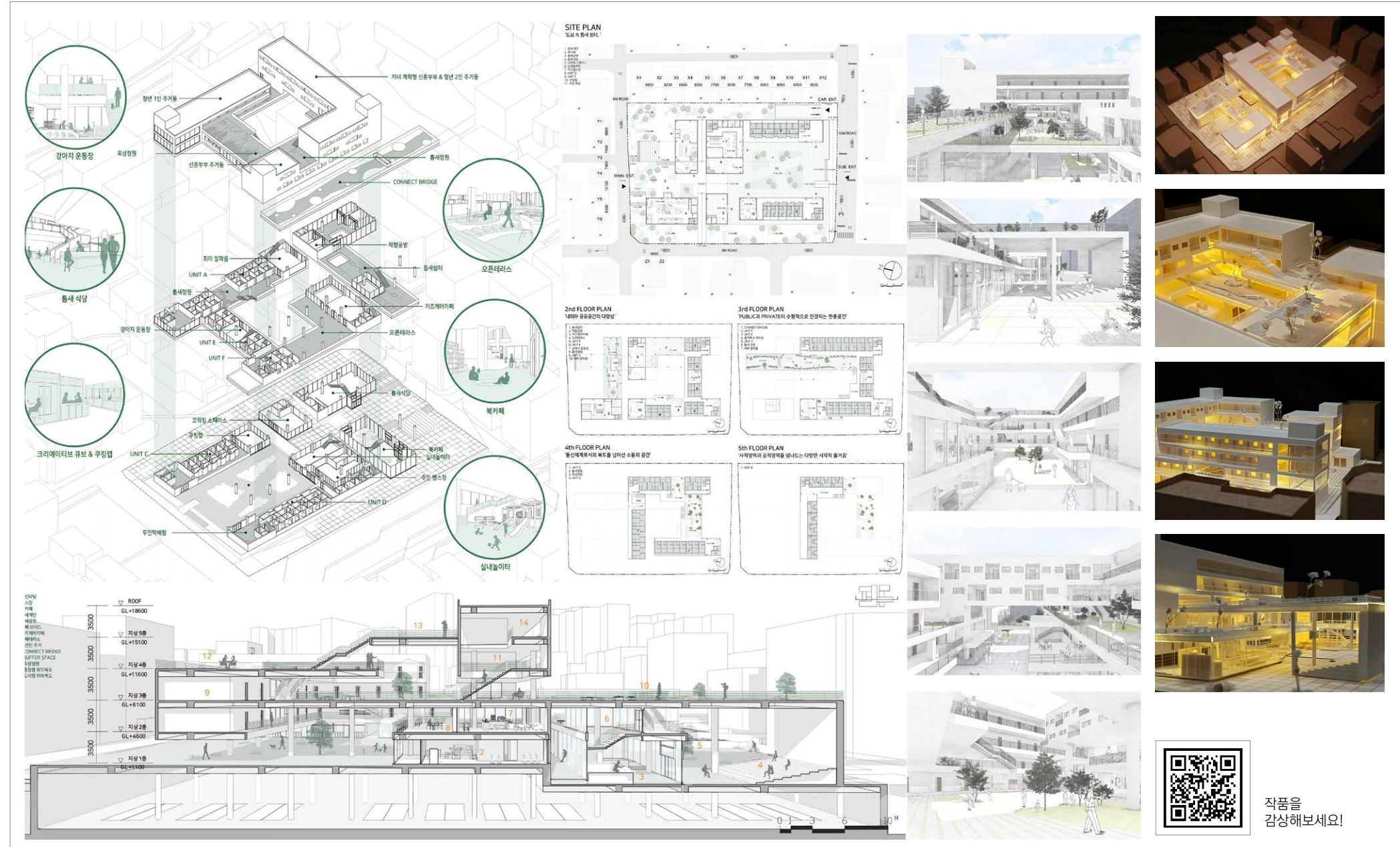
나는 “실 틈”에 산다

한국교통대학교 김유림, 김하랑



INTRODUCTION

도시에서 자본 없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빌딩숲이 즐비한 도시에는 지역주민과 거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준사적영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률적이고 평면적인 주거에서 입체적 주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주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고 연결해 다양한 내외부 공간에서 커뮤니티와 휴식이 이루어진다. 공간 구성은 수평적 전략과 수직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전략은 퍼블릭 공간과 프라이빗 공간을 가로지르는 67m의 'CONNECT BRIDGE'가 있다. 브릿지를 통해 외부공간을 연결한다. 수직적 전략은 중정을 바라보는 층별 연결계단 아래로 각 층의 세대를 위한 준사적공간을 제공한다.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층별 연결계단은 동선 체계로서의 복도를 넘어서 소통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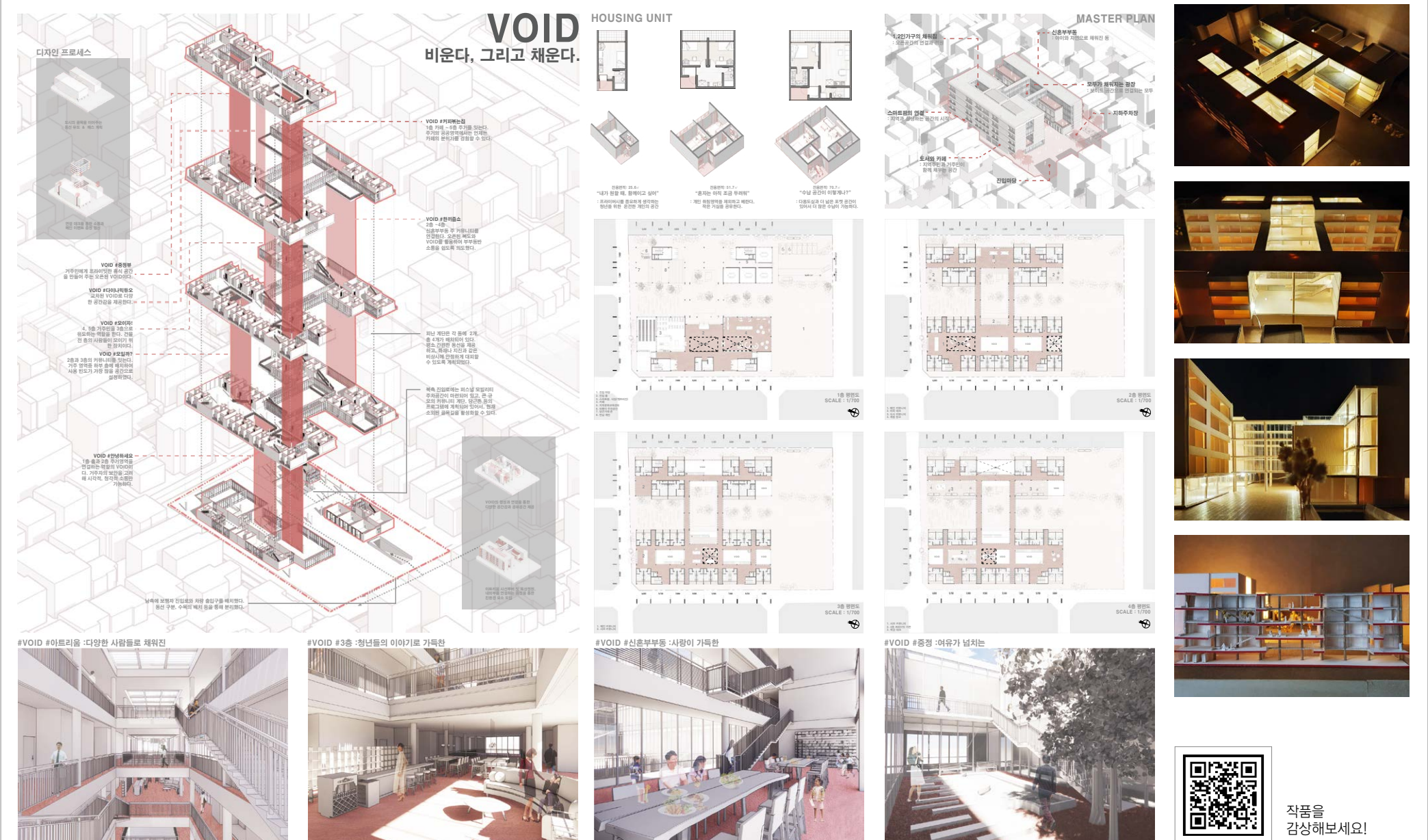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VOID 비운다, 그리고 채운다



사회가 다원화되어가고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우리는 이들을 연결할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요소, 영역 사이에 대한 상황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로 VOID를 활용한다. 모인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VOID의 성격도 결정된다. 사람들로 채워진 VOID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각각의 VOID는 시냅스처럼 영역성을 가지면서도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주자가 이동하거나 시선을 돌림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 환경을 제공한다. 당신은 전혀 고립되어 있지 않고, 언제든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VOID는 각각의 분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퍼지며 공간을 채워 나간다, 마치 밤하늘 그 너머까지 채우는 불꽃놀이처럼.



CLOSED NEIGHBOR : 가까운 이웃

동의대학교 한소현, 남다빈



INTRODUCTION

4차, 5차 생활공간을 추가하여 'Closed Space'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Closed는 팬데믹 시대의 1인 단독 공간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친근함'을 가져와 공동체를 이끄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는 건물 내외부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담장 대신 'X' 축으로 길을 외부와 연결하여 거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Closed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야외 Closed는 친환경을 위한 모듈식 스마트그린으로 계획했다. 대지분석을 통해 청년, 여성 인구비율과 주변 창업가 거리 연계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프리랜서, 창업가, 여성'으로 분류 후 내부에 맞춤형으로 하층부에 스마트 라운지 및 청년몰, 층별 공용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건물의 수직수평적 볼륨감을 형성하여 지붕층의 녹지로 도시 내 녹지 부족 현상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CLOSED NEIGHBOR : 가까운 이웃

주택 호수

- A. 1인 (24㎡) : 35호
- B. 1인 확장 (32㎡) : 20호
- C. 2인 (40㎡) : 21호
- D. 3인 (48㎡) : 18호

총 : 94호

용도별

- A. 주거공간 : 47.8%
- B. 커뮤니티 : 9.2%
- C. 창업지원시설 : 22.7%
- D. 공용공간 : 20.3%

총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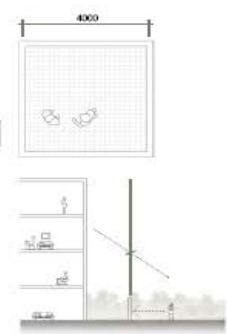
개요
 위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지면적 : 6,588㎡
 건축면적 : 2,824.13㎡
 연면적 : 11,600㎡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 지하1, 지상7층
 건축비율 : 42%
 용적률 : 174%

PROLOGUE



1, 2, 3차 생활에 '4차' = 공통점을 찾는 공간, '5차' = 공통점을 찾은 사람들이 그룹되어 모이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 4, 5차 새로운 전이 공간으로 보고 closed개념을 넣어 청년을 위한 MULTI-HOUSE를 계획하고자 한다.

PROBLEM



STRATEGY

부족한 개인공간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원룸의 크기는 보통 13~16㎡로 취미생활과 사람들과의 소통 공간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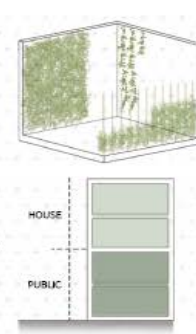
소통의 부재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대개 건물 주위로 단장이 쳐져있어 외부인과 건물 사용자의 만남을 지양하게 한다.

주거면적확장
 최소 주거면적은 4m * 6m로 개인여가 활동 공간 및 여러 사람이 들어가도 수용 가능한 공간 제공

경계 허물기
 건물과 외부를 경계짓는 담장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로 자연스러운 이동 조성

소통공간 제안
 광장 및 녹지 공간에 최소 3m*3m 모듈의 스마트 그린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제공

수직프로그램 조닝
 상층에 주거, 하층에 상업 및 공용 공간으로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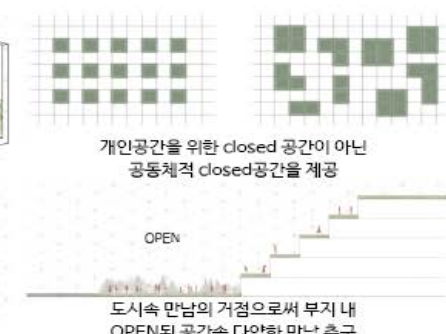
SITE ANALYSIS



MASTER PLA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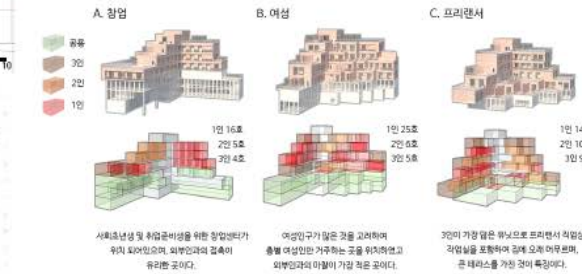
FLOOR PLAN



MASS PROCESS



PROGRAM ZONING UNIT ZONING



SELECT PLAN



UNIT PLAN SCALE 1/200



PERSPECTIVE VIEW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WHAT'S YOUR #PERSONAL HOUSE?

전남대학교 김채연, 최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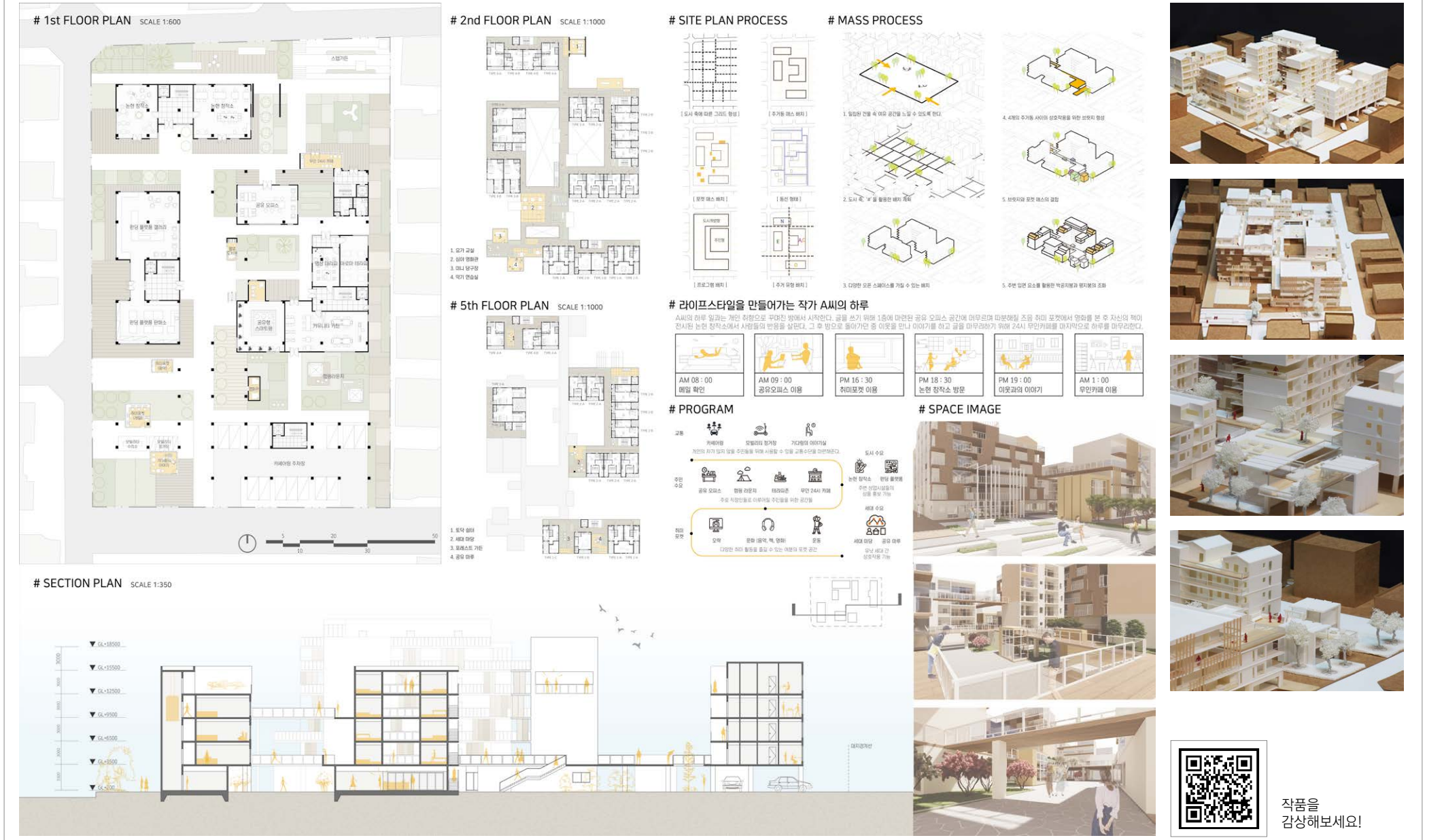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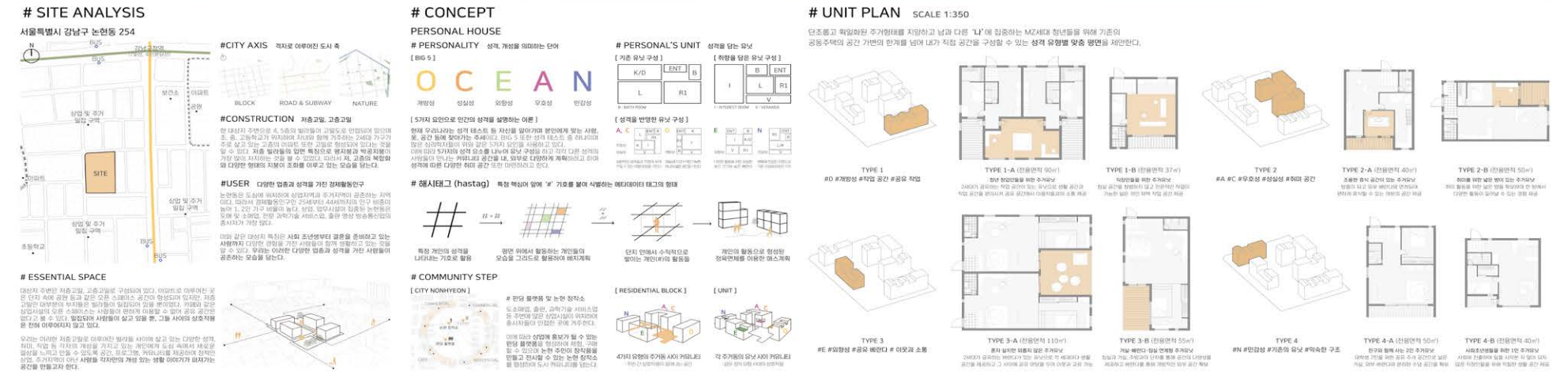


INTRODUCTION

우리에게 맞는 주거 공간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을 뒤로하고 학업, 직장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성격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 특장들을 공감하면서 재미를 느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상호작용을 형성하기 위해 계획안에 도시 개방적인 프로그램과 대상지의 주민만을 위한 사적 공간인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였다. 개인의 성격 유형으로 주거공간을 BIG5 성격이론에 따라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다양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 유닛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상생활을 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탐색할 수 있는 포켓 매스를 통해 개인별 다양한 활동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공간들이 모여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개인들이 머무르는 주거 단지를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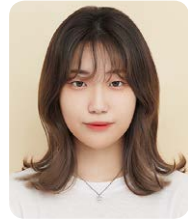
WHAT'S YOUR #PERSONAL HOUSE?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Fickle To Sustain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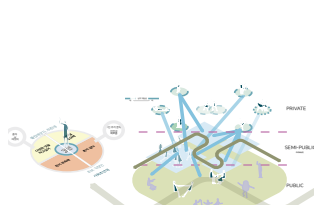
홍익대학교 유윤아, 윤지영



INTRODUCTION

‘사회 초년생기’인 청년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재정적 여유의 부족 등 1인 주거 세대가 갖는 문제들을 겪는다. 또한 대상지의 부족한 오픈 스페이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자유롭게 쉬거나 모이기 어렵다. 지역 주민들은 각자의 생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이는 지역 공동체 연결성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취미공간’의 개념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주고 커뮤니티를 조성하려 한다. 동시에 저층부를 공원으로 개방하여 외부인과 일부 공간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의 유입을 통한 친사회적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선 공간들은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크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Public 공간, 주거자인 청년끼리 공유하는 Semi-Public 공간, 개개인의 Private 공간으로 나뉜다. 청년들은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며 선택적 교류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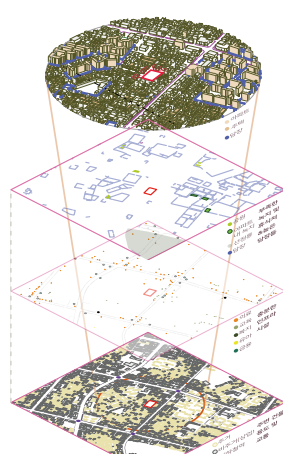
INTRO



청년의 삶은 변화를 거듭하고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 안정되기 위함이다. 우리는 여러 변화의 발원 중 대학 졸업에서 취업, 그리고 일부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는 초보 직장인들, 즉 ‘사회 초년생기’로 청년층을 특징하고자 한다. 요즘 이러한 청년들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재정적 여유의 부족 등 1인 주거 세대가 갖는 문제들을 겪는다.

청년들에게는 공유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여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용을 줄여주고 커뮤니티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설 일부와 개방적 녹지를 외부인에게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통한 친사회적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선 공간들은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사회-공적 영역이 나뉘어 청년들은 선택적 교류가 가능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public 공간, 주거인들끼리 semi-public 공간, 주거인 개개인의 private 공간으로 나뉜다.

SITE : 강남구 논현동



대상지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일대에는 아파트에서 주택까지 다양한 주거 시설이 있고,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주거시설의 경계를 따라 세워진 담장이나, 부족한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머물러 쉬거나 모이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지역 공동체 연결성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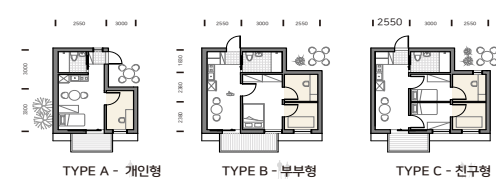


건축개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6588㎡
 건축면적 3566㎡
 연면적 4094㎡
 용도별 면적 56% (최대 60%)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102대(차량인 7대 (최소대수 90대))
 용도별 면적 30.3㎡ 60가구 | 40㎡ 2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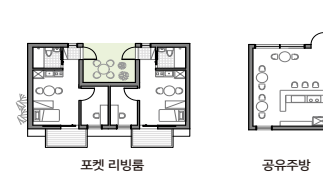
주거 유닛

주거 유닛에 일파를 제공하여 프라이빗한 취미생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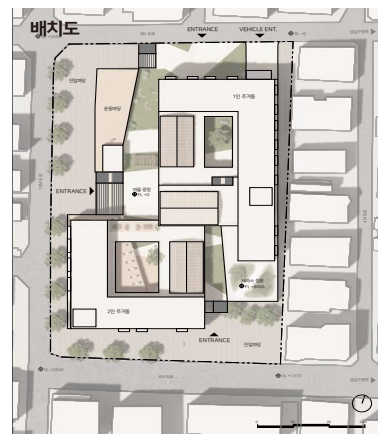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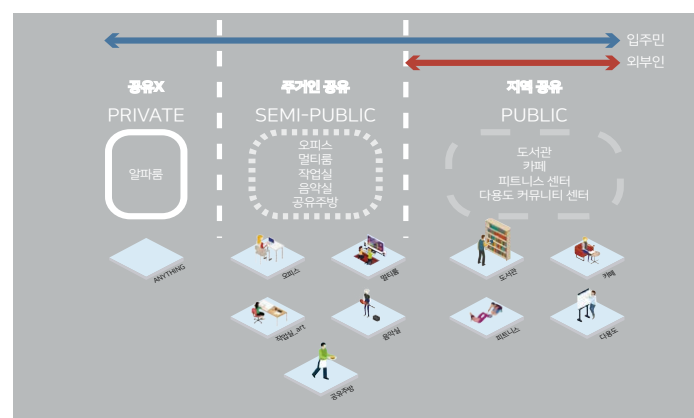


주거 속 공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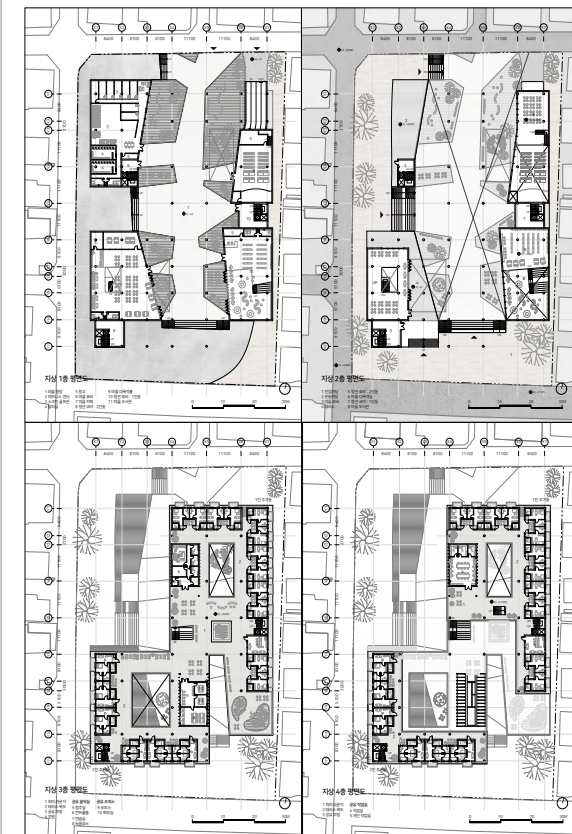
유닛을 배치했을 때 가운데에 생기는 공간은 포켓 리빙룸으로 사용 가능하며, 1인동에는 공유 주방 공간을 배치한다



취미공간 개념 프로그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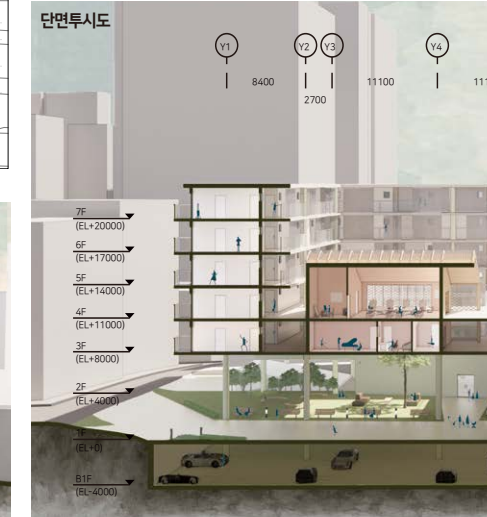
단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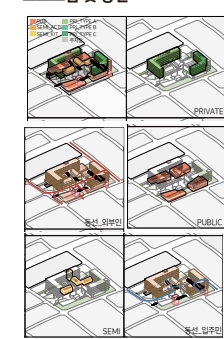
매스 프로세스



선근 공원



프로그램 및 동선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ZOOM IN, ZOOM OUT



기존의 주택은 수요에 초점을 맞춰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는 정형화 된 박스 안에 갇혀 나의 정체성을 찾기 못한 채 의심의 흐름대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전락 해버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집은 ‘주거’ 이상의 기능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까? 우리는 기존의 도시형 주택에서 시작해 청년층이 요구하는 작지만 개성있는 주거유형을 제안한다. 기존의 공동주택이 단지 단위의 커뮤니티와 편의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이를 넘어 동네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연속된다. 공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알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연결되고, 주변 환경과 소통하며 생활영역의 확장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본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을 통해 주거기능을 넘어 다양성을 중시하며 서로를 궁금해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그릇을 제공하고자 한다.

ZOOM IN, ZOOM OUT

This architectural rendering illustrates a modern multi-story building complex, likely a residential or mixed-use development. The image is presented in a 'cutaway' style, revealing the interior spaces of the buildings. The central courtyard is a key feature, featuring a paved plaza, greenery, and a small structure. The buildings are characterized by their white facades and large glass windows. The cutaway sections show various interior layouts, including living areas, bedrooms, and common spaces. The ground level shows a parking area with several cars parked. The overall design emphasizes a bright, open, and community-oriented environment.

MALTA → 주택: 지역개발을 촉진할것
가문의 주택은 수요에 초점을 맞춰 주택개발을 해왔다고 한다. 박스아웃(외곽)의 청정성을 지닌것은 가문의 최대로 생활하며있다(그렇다면 앞으로 무주택의 집은 '주거' 이상의 기능을 넘겨야한다)
우리는 가문의 토산물, 공동체에서 시작할 현안을 요구하는것
가치를 높이고, 가문의 공동체에서 넘어갈 때의 가치를 더한다!
우리는 이들을 이질화, 동질화 경향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현안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할수 있을
되고, 우연한 만남, 상호 존중하여 생활양식, 생활의 흐름, 공동
사회를 이루어가게 한다. 본 프로젝트는 공동체 구조가 지닌
중요사항을 모두 고려하여는 현안을 위한 다양한 주거를 제공하는

ZOOM IN, ZOOM OUT
손가락을 사용하여
경험을 할 수 있는
변화경을 형성할
공격력으로 이리
저리 움직일 수

단독주택 : 골목길

1970년대

평균적인 외부공간

영역성은 거주자로 하여금 내집
라는 거주자들의 관념적 인식은
고 정주성을 확보해 다양한 계
가치로 인식된다.

HOUSING UNIT

4000mm

8000mm

10 TYPE-A

도시계획에 맞는 길 연장하기

지반층 구조

--	--

[illegible]

Walking Hobby Day

성균관대학교 정현일, 김규희



INTRODUCTION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은 live, work, play 세가지를 생활 환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대지는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다채로운 삶과 다양한 연령대의 공동체를 위한 지역개방형 복합주거의 새로운 제안

Walking Hobby Day

PROLOGUE

무한경쟁 사회에서 사람들은 집단보다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공동체 간 소통은 줄어들고 개인은 더욱 고립되어 서로를 경계해나오게 된다. 현대 청년들은 취업, 창업, 결혼, 출산 등 자신에게 닿지 않는 일상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경쟁하고, 자신을 강박한다. 청년들은 경쟁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이들에게 고립된 타인들, 즉 스트레칭을 다지고, 나만의 여가를 위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공 공동체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시설을 도입하는, 주거공간이 변화에 선두되어야 한다. 일어난 청년들의 시간을 단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배치하고, 양질의 '드림'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 구성원이 서로를 경쟁하지 아닌,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며 무한경쟁사회에서 잊혀지던 '여가'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대상지 분석

대지의 부지

본 부지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도시 맥락

본 부지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개념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주거 유닛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디자인 과정

1. 컨셉을 고려한 선별 공간 배치

2. 공간을 바라보는 마스터플랜 계획

3. 건물을 감싸는 수직형 주거용 배치를 형성

4. 유리의 테라스로 실내외 공간 조성

프로그램

1. 여가공간 (1F-1F)

2. 문화공간 (2F)

3. 공유공간 (4-7F)

지상 1층 평면도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여러 장면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이웃 사촌 간 정을 나누는 공유공간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아파트를 통한 청년과 지역주민의 마주침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프로그램, 즉, 사람을 이어주는 트랙

본 프로젝트는 대도시적 관점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live와 work만 해결할 뿐, play를 해결하는 여가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play를 해결하기 위해 야외공원 요소인 트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트랙 주변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주변 거주민들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노후동 도시 속으로 청년들이 스며들 수 있게 된다. 실내화 된 트랙과 양옆에 펼쳐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를 설계하여, 지역주민과 청년과의 거리감을 없애 노후동 도시공동체가 진정한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FM (Frame on Multi Housing)

홍익대학교 이정민, 박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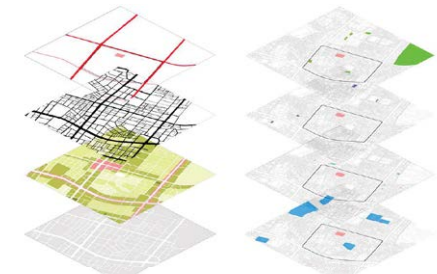


INTRODUCTION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의 속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다른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찾기 못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간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들의 만남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자신만의 색을 외부로 드러내고 소통하는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는 공적영역이 부족하고 사적영역에 치우친 공간위계를 지닌다. 또한 부지 주변으로 다양한 계층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도 공유하며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공간을 배치해 동선을 다양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설계에서는 저층부와 옥상에서 지역 내 다양한 계층 간의 만남, 커뮤니티 공간의 다양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단순히 주거 기능만의 주택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해 도시와 상생하는 Multi-Living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SITE CONTEXT



대지 일대의 특징
대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볼록 내부에는아파트단지와 업무시설이 함께 위치해 있다. 강 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주변으로는 상업시설들이 모여 있으며, 작은 사무실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점심시간의 유흥공간이 많다. 인구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약 15%로 고령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학교들이 많아 청소년 인구비율도 높다.

대지의 가능성
1. 지하철역(강남구청역, 선정릉역)과 도로 5~7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 다양한 인구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사항
주변 도시조직과의 연계에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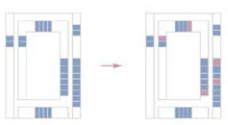
컨셉 _ 다양한 사용자

1. Children to Elderly



마을주민인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시간대에 따라 공간을 점유하는 비율이 달라지므로 같은 공간이라도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Common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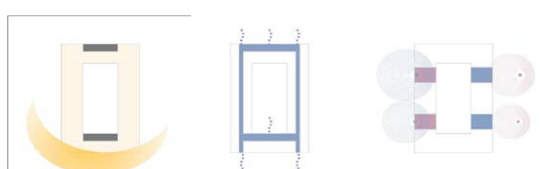
비어있는 1인 주거 해결하는 "Common Hotel"은 청년임대주택의 공실을 호텔로 사용함으로써 공실률을 줄일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유입으로 주변 도시와 상생할 수 있다. 호텔로 사용되는 객실은 1인주거 유닛이며 지반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청년인 주민들과 동네주민들과 교류가 발생하게 된다. 호텔 방문객은 청년임주민들과 동선이 겹치는 외부인이다.

컨셉 _ 다양한 외부공간



외부공간의 재문화
외부공간은 마을 전체가 공유하는 공간과, 입주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 개별 외부공간으로 나뉜다. 입주민 공유공간은 건물 안팎으로 풀러있어 마을과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마을전체가 공유하는 공간은 크게 저층부와 옥상에 위치해 있어 주거시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동시에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개별공간인 테라스는 개인의 다양성을 외부로 표현하는 소통의 공간이 된다.

매스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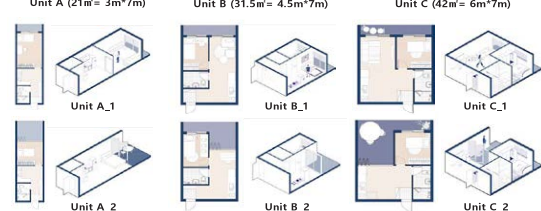
밀집과 고려한 주거배치
햇빛이 들지 않는 복층의 경우에는 주거유닛을 배치하기가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공간을 한 번 길러주고, 동네 골목쪽으로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마을에 에너지가 불어넣는다.

주거 유닛

모든 주거유닛은 개별 테라스를 가진다.

테라스는 외부와 주거공간의 경계에 있는 Buffer Zone으로 주거 내부공간을 가려준다. 또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 현대인에게 테라스라는 장치는 개인만의 녹지가 된다. 또한 입주민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 도시의 다양한 입면을 형성한다.

1인 주거유닛



자취생을 위한 기본적인 오피스텔 구조로 부엌을 분리한 유닛이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1.5룸 구조로 거실 공간을 가진다. B, C유닛의 경우 반라동물을 기르는 1인 가구를 위한 유닛이 된다.

직장인을 위한 주거유닛으로 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다. C, D유닛의 경우 또한 넓은 테라스를 가지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1인가구를 위한 유닛이 된다.

2인 주거유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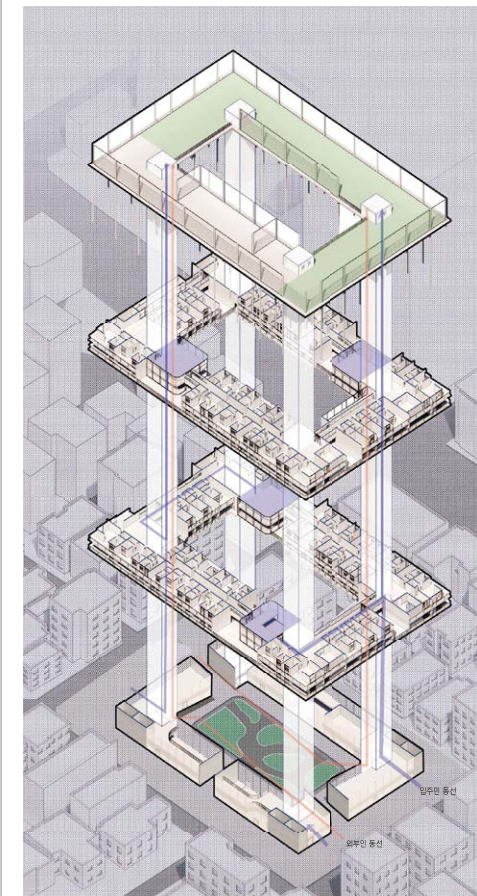


룸메이트를 위한 주거유닛. 방 크기가 똑같은 구조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유닛. 각 층의 로비로써 배치하며, 두 면으로 열린 넓은 거실공간을 가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유닛. 복도와 테라스가 축을 형성해 안방과 작은방들을 분리해 부모와 자녀의 개인공간을 확보한다.

3인 주거유닛



프로그램 단면 다이어그램



S_01 다양한 입면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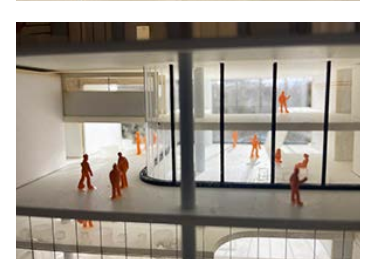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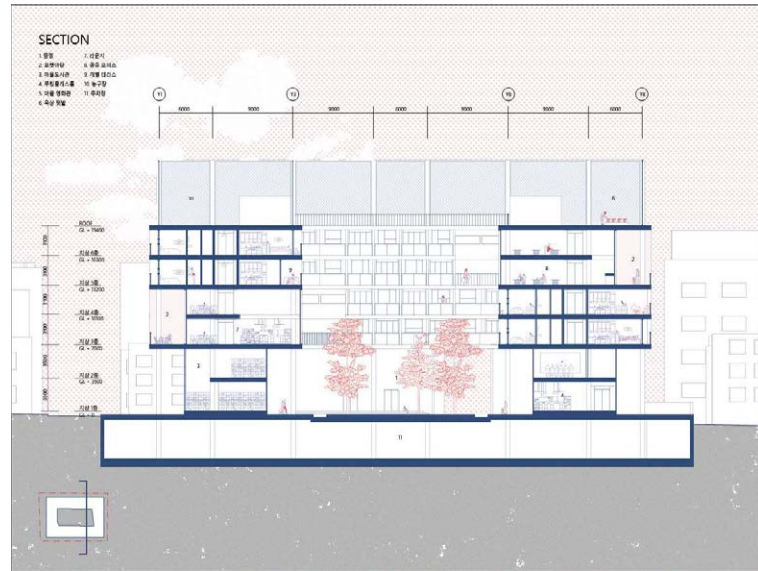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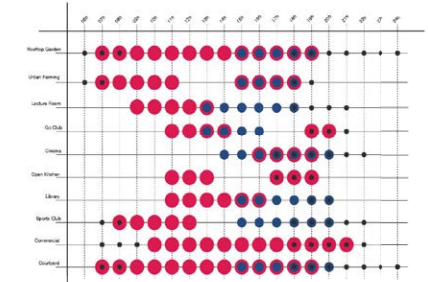
S_02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포켓스페이스



S_03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중정



시간대별/계층별 공유공간 점유율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다정

단국대학교 조현우, 임민재



INTRODUCTION

현 시대의 청년층은 각기 다른 개성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기회와 선택, 소통, 휴식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설계안은 규모와 이용자에 따라 3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정원으로 엮어주었다. 1차 커뮤니티는 단지를 넘어 주변 도시와 상호작용한다. 다양한 기회와 체함을 열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배치하고, 관련 있는 프로그램끼리 정원으로 엮어주었다. 2차 커뮤니티는 거주민 전체의 커뮤니티이다. 거주자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들을 이어주는 브릿지 정원이 형성된다. 3차 커뮤니티는 각 층의 4~5세대를 위한 커뮤니티이다.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여유를 주는 테라스 정원을 배치하여 엮어주었다. '다정'은 거주민에게 대상자에 맞는 적절한 공유공간과 정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주변 도시와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곳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사이 : 사이 공간에서 쓰여지는 우리들의 시나리오

아주대학교 한상현, 건양대학교 김태호



Prologue

"예술을 품은 청년 문화 주거"

청년들의 예술 활동에는 그들의 다채로운 삶이 투영되어 있다. 그림, 공예,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을 소통한다.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언제든 그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 예술가 복합 주거를 계획하였다.

대다수의 아티스트(진지)의 경우 작업 공간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창작활동을 통한 소통과 표현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픈된 공간 속에서 우연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서 청년 예술가와 지역사회는 항쟁으로 영감을 얻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일부 예술가들에게는 단순한 작업과 주거가 합쳐진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자유롭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창작과 생활의 공간이 되어, 지역사회는 다양한 예술들을 세디르해 줄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 된다.

"대지에서의 예술성 발견"

대지 앞에는 강남구청역과 신정동역 사이로 강남구청역에 더 인접하다. 강남구 노원동은 강남대교가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다. 생활 수준의 높은 주거 중심 지역과 함께 공공기관과 대규모 상업용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사이사이 여의 스튜디오와 전시관, 영화관, 공연장 등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 예술적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사이공간을 기준으로 20년 이내에 위치한 다양한 예술 공간들과 새로운 관계를 주고받으며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주며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주거의 역할을 수행한다.

Design Concept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이길, 유리복도"

사이길은 2개의 공간이 중첩되어 만들어진다. 이 사이길은 주변을 둘러싼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우연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단지 내의 다양한 사이길을 만들어 단속의 이동 동선으로써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우연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 사이길은 유리복도로 표현하여 보다 구체적인 공간으로 규정된다. 유리는 투명성을 가진 재료로 물리적으로는 두 공간을 분리해 주지만 시각적으로는 연결된다. 때문에 두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공간이 되어 대체로 활동을 만들어낸다.

Housing Unit

"사이공간을 통한 입주자 커뮤니티"

건물의 영역은 크게 저층부의 예술 영역과 3,4층 부이 주거 영역으로 구분된다. 주거 영역에서 유닛을 배치할 때 그 사이사이를 비워 공간을 만들으로써 입주자 간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의 공간에서 완전한 휴식의 공간으로"

청년 예술가의 작업에 따라 4가지 크기의 주거유닛을 확보하였다.

유희적 하지만 편안한 공간으로 1층 예술 영역의 창작 공간에서 완전한 휴식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게 주거 유닛을 구성하였다. 그 중 유닛은 여의 테라스 공간을 부여해 예술 작업을 주거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INTRODUCTION

청년들의 예술 활동에는 그들의 다채로운 삶이 투영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의 예술을 통해 언제든 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 예술가 복합 주거를 계획하였다. 오픈된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우연한 만남과 소통들이 합쳐져 청년 예술가와 지역 사회는 더불어 나아갈 상호작용의 존재로 발전한다. 디자인 중심 아이디어는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이길과 유리 복도이다. 사이길은 2개의 공간이 중첩되며 만들어진다. 이 사이길은 주변을 둘러싼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다양한 활동과 우연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사이길은 유리 복도로 표현되어 구체화 된 공간으로 규정된다. 유리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는 공간을 분리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유기적인 흐름을 만든다. 따라서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독립된 공간이 되어 다양한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Axonometric

Floor Plan

1F Plan, 2F Plan, 3F Plan, 4F Plan

Section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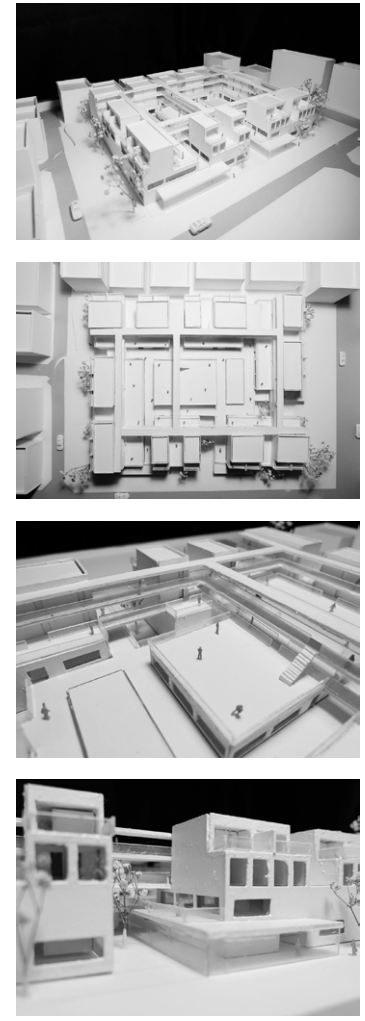
Interspace Scenario

"예술가의 초상,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사이 공간 유리복도"

유리 복도로 표현한 다양한 사이 공간은 입주한 청년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오픈된 공간으로써 다양한 생활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사이 공간을 연결하는 유리복도는 특정 예술 작업을 공간이며, 예술을 사냥해 만들어지는 공간은 사이 공간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성격이 표현된 다양한 공간이 된다.

복도의 간격은 4m로 설정하여 사이 공간에서 만들어낸 만남과 관계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유리 복도의 지붕은 오픈된 사이 공간으로써 더욱 활동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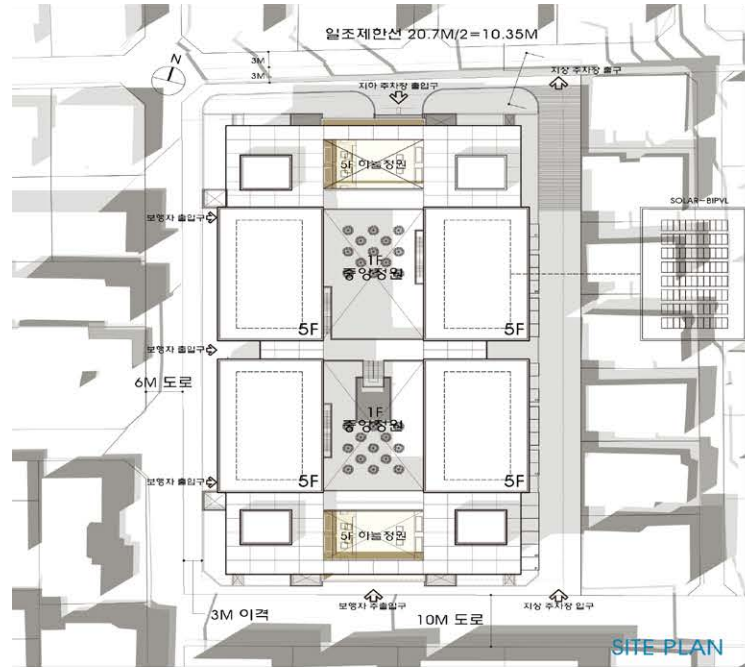
"사이 공간 활동의 예사"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점포주택 “JUMP FOUR” (창업지원특화 청년 임대주택)

중앙대학교 민솔, 강원대학교 이소연



설계 개요

설계명: 2024 청년주거단지 신축임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4 (전 18서울본부 부지)
 지목: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용도: 임대주택
 대지면적: 6,585㎡

면적: 16,337.44㎡
 용적률: 254.4%
 건축면적: 3,102.70㎡
 건폐율: 47.10%
 용적률: 199.30%
 용도: 임대주택
 규모: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1.15m
 주차대수: 40대
 조망: 대지면적의 15%
 계획: 대지면적의 18.64%

구분별 면적표

구분	점포주택		커뮤니티 공간		공동		복도, 홀		기타		합계		비고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세대수	면적	
5F	24	53.91	1,293.84	-	-	-	1,150.46	-	-	-	1,150.46	2,444.30	청년 창업특화 및 창업지원
4F	32	63.91	1,726.12	-	-	-	1,256.37	-	-	-	1,256.37	3,013.49	청년 창업특화
3F	32	63.91	1,726.12	-	-	-	1,256.37	-	-	-	1,256.37	3,013.49	청년 창업특화
2F	32	63.91	1,726.12	-	-	-	1,377.58	-	-	-	1,377.58	3,102.70	청년 창업특화
1F	-	-	-	(285.44+231.92)X2=1,034.72	458.04	63.36	-	521.50	-	-	1,556.22	3,102.70	커뮤니티공간(도서관, 피트니스, 카페 등)
지상층	120	-	6,409.20	-	-	-	1,034.72	5,562.62	63.36	-	5,626.28	13,130.20	점포주택, 주거주택 및 커뮤니티
합계	120	-	7,233.64	-	-	-	308.39	630.99	3,603.62	4,443.00	5,207.44	15,337.44	점포주택, 주거주택 및 커뮤니티



INTRODUCTION

자라나는 청년 세력, 확실하게 지원해줄 방법이 없을까? 내 집 마련의 애환과 통근의 고달픔에 빛나는 창업의 기회를 담아 “점포주택”을 제공해본다. 본디 점포주택은 과거 집 한 칸을 가게로 차려 생계를 꾸려가는 형태였다. 이런 점포주택을 끌어와 강남 한복판에 “Jump Four(점포店鋪)”를 제안한다. 각 세대는 전용16평, 점포 성격에 따라 변화하는 유틸리티공간(3평), 점포공간(6평), 주거공간(7평)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의 공공정원인 1층 중정마당을 중심으로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2층~5층은 각 점포가 중정을 둘러싸고 공중가로를 형성하며 마주 본다. JUMP ONE : 1시간→3초 출근으로 점프! JUMP TWO : 직원→사장님으로 점프! JUMP THREE : 세이브(주거비)와 플러스(창업수익) 더블 점프! JUMP FOUR : 종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경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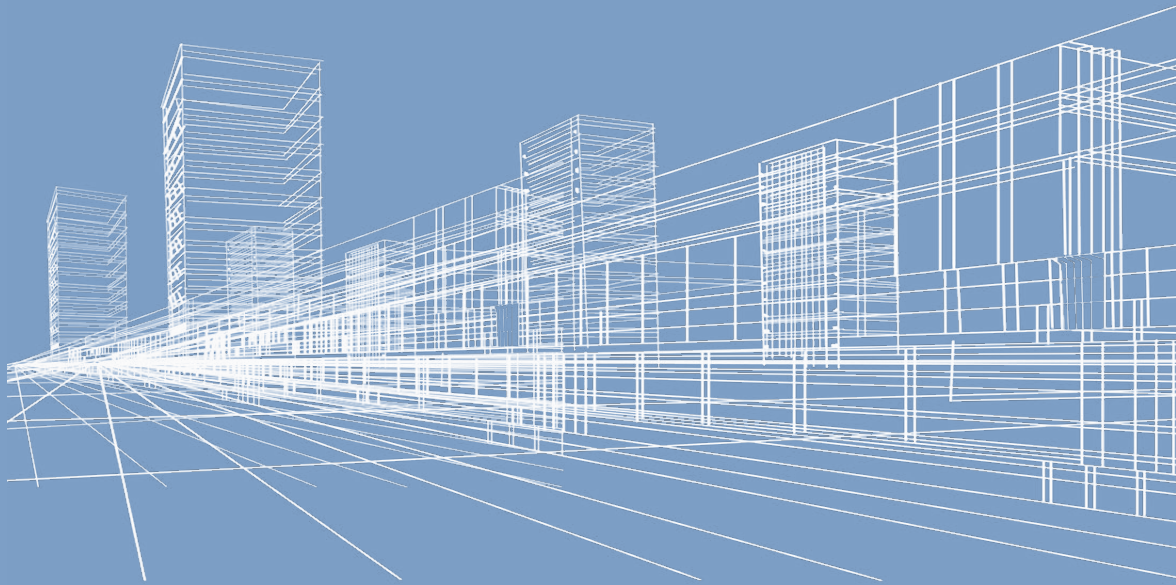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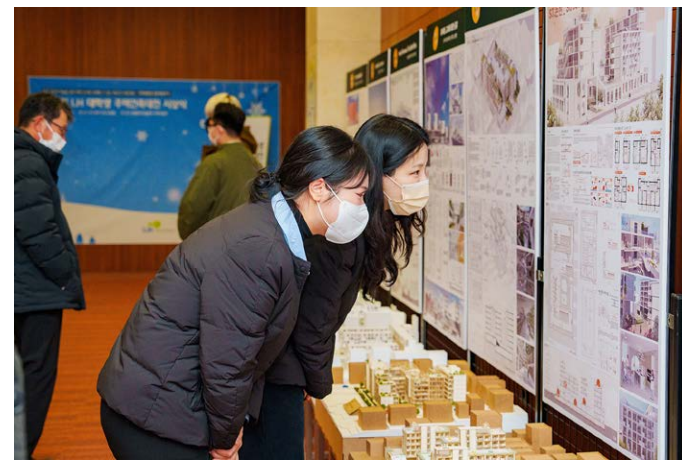


SECTION 3.

GALLERY

● 갤러리





2022

제26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MULTI-HOUSE :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발간일	2022. 12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펴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처	처장 류옥현 부장 오승훈 차장 전수현 과장 이유진
홈페이지	www.lh.or.kr
전화번호	055) 922-5712
편집제작	(주)인투인미디어 02) 2233-4018

※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